

연중 제29주일(전교주일)

제1독서: 출애 17, 8-13  
제2독서: 2 디모 3, 14-4, 2  
복음: 루가 18, 1-8

# 숲 정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격려하시오”  
(2 디모 4, 2).

## 강론

## 소리

### “외치기 전에 먼저”

김준호 신부/사목국장

“야, 너 뭐 믿고 사냐? 하느님? 죽어버린 모양이다. 니가 믿는 하느님은 죽어버린 모양이다. 하느님 믿고 산다고 사는 꼴이 그게 뭐냐? 아니 니 얼굴 응둥그리고 사는 걸 보면 니 애비 죽은 모양이다.”

자식 잘못두어 부모 욕 얻어먹듯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는 모습 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애비 하느님 욕되게들 살고 있다는 생각들지 않던가요? 뭐 세상이 널 모래 망하노니 돈, 재산 다 끌어와라. 내 자식, 내 아내 빼앗아간 여호완가 하느님인가 제기될 확 불질러버릴거다. 자, 요즘의 이런 세상에다 대고 하느님 믿으란 소리 솔직히 쑥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 제쳐놓더라도 ‘전교하자, 전교하자.’ 하는 그 진부하고 식상한 소리들은 솔직히 우리가 한두 번 들었던 말입니까? 매년 해왔던 소리이고 거의 매주일 듣는 소리 아닙니까?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마땅하고 지당하게 해야 할 일임을 천주교 신자치고 여태껏 누가 모른단 말입니까? 다만 이제는 말로써, 입으로써 외치기만 해서 안되는 세상 같습니다. 이 세상 사는 꼴들이 하도 불쌍 사납다고 괜히 덩달아 투덜거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회생하고, 우리부터 봉사 좀 더하고, 우리부터 좋은 일 앞장서고, 우리부터 양보하고... 뭔가 우리가 작은 일부터 사는 모습으로 실행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좀 확 펴고 안 믿는 사람 부리워하도록 좀 기쁘게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게 다 기쁜 소식 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과 굳은 신념이 있을 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사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삶을 헛갈리게 하는 것은 저쪽 사람들보다도 우리네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만 같으니, 이런 형편에 어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큰소리칠 수가 있어야지요.

전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요? 아니 무엇을 전하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전교주일날 좀 엉뚱하지만 하느님 믿고 사는 우리네 모습에 대해 좀더 진지하고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봅시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독수리 이야기”

아직도 휴거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판에, 또다시 신 앙문제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친 사건이 있었다. 언제까지 시끄러울 것인가? 하기사 이런 일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긴 해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판에 신문의 시커먼 활자들은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을 연일 대서특필해내고 있다. 정치가 무어길래 그들은 맨날 이리저리 물러 다니며 줄서기에 바쁘지 모르겠다. 이 꼴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조짐의 징표인지 알아듣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정가 소식은 화제거리 차원이라기보다는 마치 칠후 같은 밤중에 땅땅대해에 표류된 느낌을 주는 우울한 소식 같기도 하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없다.

한 나라의 여당의 어수선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의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이합집산에 익숙한 그들의 원래 만남이 불순했으니 결과 역시 그렇게 끝나는 것이 당연하리라는 말이다. 우리 정치사가 으레 그러했듯이 이번에 또다시 헤쳐 모이는 꼬락서니도 늘 보아 온 모습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결코 놀랄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들의 어지러운 몸짓과 그럴 듯한 과대 포장의 명분 나열에 속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될 듯싶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시오.”(마태 24, 26)라고 미리 가르쳐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㉞

### 숲정이 산책



특 집 ③

### “시한부 종말론, 그 허황된 실체...”

#### 4. 성서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

옛부터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나 그 시기 그리고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지 알아내고자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특히 묵시록은 이상한 언어나 상징적인 숫자, 신비스런 환상으로 쓰여졌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묵시록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이나 문학양식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성서에 나오는 숫자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테면 3, 4, 7, 12...는 완전을 의미하거나 성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3은 삼위일체에서 따온 숫자이며 4는 세상의 네 귀퉁이(동서남북), 7은 3과 4를 더한 숫자이기에 완전을 의미하는 글자였다. 또 완전한 숫자인 7에 1을 더한 8이 셋이 모인 '888'은 예수를 상징했다. 이처럼 완전한 숫자인 7에서 1을 뺀 6은 부족한 흉수를 상징했고 12의 절반이기에 불완전한 숫자로 이해했다. 묵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흉수가 셋이 모인 '666'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지만 박해시대에 쓰여진 묵시록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숫자는 교회의 최대 원수인 모든 악과 그 화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666'을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네로(Nero) 황제'라고 한다.

묵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선택된 144,000명에 대한 내용은 이렇다. 이 숫자는 12×12×1,000으로서 처음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고, 나중의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1,000은 하느님께 속한 무한한 숫자를 상징한다. 그러기에 144,000명의 의미는 구원을 받을 사람의 수효가 무한히 많다는 것을 말하고 누구든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구원받는 것이다.

#### 5.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앙, 심각한 환경오염, 사회적 병리현상 등을 말세의 징조로 예를 들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서를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 속에 파고든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에 쉽게 매혹당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이고 종교성이 결여된 무신앙인들보다는 기성종교에서 자기 욕구를 채우지 못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일단 말려들면 학업, 직장, 가정을 포기하고,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며 태아를 유산시키는 사례를 보면서 '92년 종말이 불발로 끝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마태 24, 36).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순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종말론적 삶은 매순간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언제 올지 모를 종말을 잘 맞이하기 위해 매사에 성실히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시대의 싸늘한 무신앙과 허황된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하고,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자. “오소서, 주 예수여!”(묵시 22, 20).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상·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주)흥경물산 전주지사(대리점)

무궁해·무독성 세제

- 천연샴(주방용)
- 맑은샴(세탁용)
- 샴이랑(목욕용)
- 아기샴(아기목욕용)

이종배(오한) 변순옥(막달레나)  
☎ 85-5187

**명승카인테어·세차장**

자동차 부품 일절  
자동차 상담 전문

송 주 원(라우렌시오)  
전북은행 본점 옆  
☎ (0652)75-2270~1  
호출기 012-684-0107

**잡간**

**“우리밀 잔치마당”**

우리 땅에서 난 쌀, 보리, 콩, 감자, 된장, 김치로 차려진 구수하고 건강했던 우리 밥상. 틈틈이 수제비와 칼국수를 만들어주시던 정겨운 어머니의 손길... 어느 결인가 우리 밥상은 온갖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 공해식품으로 바뀌어버렸다.

식품소비구조의 급격한 변화(89년의 경우 국민 1인당 1년간 쌀122kg, 밀34kg, 콩8.3kg, 보리2kg)로 밀은 이제 두번째로 많이 먹는 주식이 되었다. 그러나 84년부터 정부의 밀수매 중단으로 전량(연평균 334만톤)을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하고 국내는 밀 종자조차 사라질 형편이었다. 게다가 수입밀은 무려 21종이 넘는 농약을 치고 심지어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까지 검출되어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며 동시에 이모작 체계가 무너져 대기정화와 생태계 균형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9년 가톨릭 농민회와 한살림이 협력하여 ‘우리밀 살리기’를 추진 어렵사리 구한 밀을 10,500평에 심어 227가마를 생산하여 종자용을 빼놓고 밀가루, 국수 등으로 공급해본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리하여 91년 5월에는 각계각층의 36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기인과 생산자 확대를 위해 활동하여 같은 해 11월 열린 창립대회에서 ‘국민 1구좌 갖기 운동’으로 승화되었다. 또한 가톨릭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작년 전국의 65개 마을, 25만평에 밀을 심어 올해는 6,500가마를 생산, 전량 수매하였고 올가을에는 100만평(전북 20만평)에 파종할 예정이다.

이제는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국민생활실천운동’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 이것은 죽어가는 우리의 땅, 자연과 농업, 농촌 그리고 소중한 밥상을 살리는 ‘생명운동’, 농촌과 도시가 함께 힘을 합치고 보람과 이익을 나누는 ‘공동체운동’, 우리 밥상을 우리 것으로 차리는 ‘민족자주생활운동’, 주름살 깊어지는 농촌, 지을거리가 없어 비어 있는 들녘을 황금물결로 채워내는 ‘고향 살리기 운동’인 것이다.

이제 첫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국민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우리밀 잔치마당이 열린다. 우리가 생산한 밀가루로 만든 구수하고 맛있는 수제비와 부침개, 함께 어우러지는 풍물마당은 더욱 흥을 돋구게 될 것이다. ‘10월18일 오후1시30분부터 5시까지 전동 성당 큰 마당에서 열리는 우리밀 잔치마당으로 뜻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85-4205, 83-0544, 83-5085

**교구 소식**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10월19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흑인 성마르틴.

1. 전교주일 2차 헌금: 오늘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2. 교구 사제 연례피정: 10월19일(월) 오후5시-23일(금) 12시 나바위 피정의 집.
3. 우리밀 잔치마당: 10월18일 오후2시-5시 전동 성당 큰 마당.
4. 축! 걷진: 10월25일 오전10시30분 우전 성당.
5. 특별강좌: 10월27일(화) 오전10시-12시30분 중앙 성당, 수강료 2,500원, 문의 85-0041(사목국).
6.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최용준 신부의 모친 박마리아(73세) 10월12일 저녁7시40분 선종, 14일 오전11시 원평 성당에서 장례식.
7. 혼인강좌: 10월25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8. 국악미사 보급 및 개창을 위한 교육: 10월24일(토)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강사-강수근 신부, 회비-7,000원.
9. 사랑의 다리 후원회 피정: 11월9일(월) 오전9시30분-오후4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강사-손인숙 수녀(성심회), 대상-회원 및 관심있는 분, 회비-6,000원, 접수-10월19일~30일, 문의-가톨릭 사회복지회 84-5290, 피정 관계로 월례미사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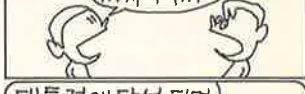
※ 축! 명명: 19일(십자가 성바오로) 김준호 신부님.

**요심이 (1002) 김병오**

김총재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것은 깜짝쇼야!



김총재는 어찌든 의원직을 사퇴하여야 할 처지이니가... 어찌해서?



대통령에 당선 되면 사퇴하여야 하며... 낙선하면?



입속까지 들어온 대권도 못먹은 무능력자이니가 사퇴하여야 하고...



**성전 건립을 위한 바자회**

별미의 음식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일시: 10.30(금)~11.1(일) 3일간
- 장소: 군산 소룡동 성당
- 주최: 소룡동 성당 사목협의회

**감사드립니다**

지회 본당 김병오(베네딕도) 신부님의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 행사에 협조와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신동교회 신자 일동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일시: 10월25일 오후2시  
장소: 삼랑진 본원  
☎ (0527)52-4241

**엑스포 커튼**  
브라인드·커튼

김 정 기(플로리아니오)  
소 미 자(디나)

영동동 신일아파트 송죽알로에 옆  
☎ (0653)858-1298

**팔보종합아채효소**

건강을 도와주면서  
아름다움을 가꾸어줍니다.

손 석 증(안셀모)  
김 제 월(안젤라)

금암동 로타리 KBS 중간  
전북지사 (0652) 74-1161

**팔보종합아채효소**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정주시·군 고창) 1개점  
(김제시·군 부안) 1개점  
(임실, 순창) 1개점  
(진안, 장수, 무주) 1개점

전북지사 (0652) 74-1161

무공해 천연세제 및 샴푸

**늘 푸른 집** (전주 원주 대리점)

- 천연샴(주방세제)
- 샘이랑(세안·세발 등)
- 아기샴(유아용 비누)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베베012-682-6543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동주

- ※ 전교주일은 예비자발교와 인도로 적극 참여바랍니다.  
1. 사제피정: 19~23일. 많은 기도바랍니다.  
19일-새벽미사. 21, 22, 23일-말씀의 전례. 오후 7시.  
2. 반회장경질: 중노 13반. 서미란(유스티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안젤라) 수고하셨습니다.  
3. 자비의모후 Cu 회계: 김상숙(헤라나)→이윅희(안젤라)  
4. 모임: ①대건회(18일 10시미사 후) ②여성연합회(20일 10시30)  
③계속형제회(24일, 후2시)  
5. 축! 혼인: 신랑-심환철(라파엘) 신부-김기묘(안젤라)  
25일 후 12시.  
6. 금주철소: 중노 15, 16반. 차주철소: 중노 17, 18반.  
☐ 지난주 봉헌금: 817,820원 ☐ 교무금: 1,395,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인

1. 신부님 피정: 19~23일 미사 없음.  
2. 성당보수공사 헌금: 전신자 적극 참여바랍니다.  
이상인, 황길명 각 100만원. 전광원 60만원. 박상기, 라경섭, 오희웅, 오교성, 한광석, 안철중, 김현덕 각 50만원. 계 610만원.  
3. 각 단계 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31일까지 제출바랍니다.  
4. 연도대회: 11월 14일 저녁미사 후(계시관 참조)  
5. 회합: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 24일 오전 10시.  
금주전례: 정승훈. 독서-김홍현씨 부부. 봉헌-전영태씨 가족.  
차주전례: 오교성. 독서-육경수씨 부부. 봉헌-성태돈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51,900원 ☐ 교무금: 1,404,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동욱

1. 사제피정: 19일~23일 나바위교육관. 많은 기도바랍니다. 피정기간 중 본당에서는 말씀의 전례 있음. 2. 전교주일은: 오늘 2차 헌금. 3. 청년회: 공식미사 후. 4. 성가정회: 20일(화) 저녁. 5. 장년회: 24일(토) 저녁. 6.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교리교사를 위한 헌금: 다음주. 8. 수녀원 신축헌금: 금주봉헌-206만원. 총액-32,907,400원. 9. 성서읽기: 에스텔 전례. 10. 금주철소: 순교자의 모후Pr. 11. 금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남현준 ②송정자. 봉헌-김단오, 김종석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강덕용 ②주영례. 봉헌-황상호, 김광열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98,620원 ☐ 교무금: 218,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 연중제 29주일! (전교의날) 2차헌금 있음(10월은 로사리오 성월)  
1. 회의: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2. 모임: 전례부-10월 22일(목) 오후 8시(전례부 전원 참석바랍니다) 3. 알림: ①사제연례 피정-10월 19일(월)~10월 23일(금) 점심까지 ※ 신부님 피정기간 동안은 미사 없고 말씀의 전례 있음(신부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신자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②레지오 야외행사-10월 25일(다음주일)공식미사 후. 장소-치명자산(많은 참석바랍니다) ③봉성체-10월 21일(수) ④영세, 첫 영성체 기념사건-사무실에 가서 찾아가세요. 4. 축! 혼인: 신랑-김정수(바로로) 신부-김필순(올리비아) 10월 18일 12시. 신랑-박병주(가스탈) 신부-유순미(수신나) 18일(오늘) 오후 1시. 5. 감사: 청년회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758,200원 ☐ 교무금: 568,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점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1. 사제피정(10월 19일~23일): 매일미사는 "말씀의 전례"로 대신함(신부님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2. 10월 21일(수) 성서공부: 쉽니다.  
3. 오늘 종교생 예술제: 장소-효자성당. 시간-12시 30분.  
4. 구역장 반장 1일피정: 10월 30일(금) 장소-천호성지.  
5. 교부님 미납되신 분 미리미리 납부바랍니다.

**\* 성전건립 기금마련 조정오 신부님 동양화전 \***

일시: 11월 13일~17일. 장소: 학생회관 전시실

6. 청소년사: 2구역 전부.  
☐ 지난주 봉헌금: 634,800원 ☐ 교무금: 465,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삼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태

- ※ 10월은 전교의 날입니다. 예비자 한명이상 인도합니다.  
1. 금주: ①바비의 성모 꾸리아(후2시) ②9월영세자 성지순례-후 3시. 치명자산(후2시) 성당집결 ③"우리말"잔치마당(후1시30분~5시)-본당 마당에서. 2. 사제피정: 19일~23일(매 미사 시간에 말씀의 전례있음)-많은 기도바랍니다. 3. 성화회: 19일 오후 6시. 4. 성모회: 21일(수) 오전 11시. 5. 혼인면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준비: 호적등본, 세례증명서, 혼인강좌수료증)-결혼 할 준비가 되면 바람. 6. 나무이식 작업 노력봉사 협조바람(매주 주일 오후 2시) 7.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헌금(일백만원)-최필지(안나). 어린이 놀이시설 대금(오십만원)-익명. 성모동굴 앞 칠쭉꽃 대금(삼십만원)김정철 8. 차주: ①성미꼬미시용(후2시) ②혼인강좌(전9시30분. 가톨릭센터)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규

1. 오늘은 전교주일은 1인1도와 냉담자를 회두권면 합니다.  
2. 오늘은 사목회장 선거의날: ①강상근 ②한상갑 ③박중구.  
3. 교구사제 연례 피정: 19일~23일, 피정기간중 방문 삼가.  
4. 말씀의 전례: 20일 강상근. 21일 차금순, 한상갑. 22일 박중구.  
5. 봉성체: 23일 전9시30분, 환자를 모신 가정은 사무실 접수.  
6. 93년 사목사업 계획서, 예산서 제출: 19일 후 7시30분 모임.  
7. 교무금 봉헌주일: 25일 주간, 신자의 의무를 다합니다.  
8. 혼인강좌: 25일 전9시30분 센터에서. 혼인시 수료증 첨부.  
9. 회의: 청년회-오늘 후 8시. 성모회-21일 어머니미사 후. 울뜨레아-25일 공식미사 후. 1인1단체 가입을 권합니다.  
10. 전일신자 소개의날: 다음주 공식미사에 환영인사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07,820원 ☐ 교무금: 1,035,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병갑

1. 성지순례: 오늘 오전 9시 30분 출발. 천호, 여산, 나바위성지, 미사도구, 도시락 준비. 주일미사 없음.  
2. 반모임: 20일(화) 오전-성원골드. 오후-한양온담. 저녁-삼정 1, 3.  
21일(수) 오전-화산1. 오후-신일.  
3. 사제피정: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본당미사 없음)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자모회: 다음 주일미사 후.  
5. 예비자교리반 첫모임: 25일(일) 미사 후.  
차주전례: 한병갑. 독서, 봉헌: 안옥기, 김영덕.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석희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섭

- ※ 오늘은 전교의 날입니다.  
-모임안내-  
1. 자모회: 21일(수) 10시 30분. 2. 꼬미시용: 24일(토) 오후 3시.  
3. 남전주지구 종교예술제: 오늘 오후 1-2시(성당에서)  
※ 19일부터 23일까지 사제피정 관계로 20일부터 23일까지는 본당미사가 없고 새벽미사 시간에 말씀의 전례만 있습니다.  
4. 유아세례: 다음주 오후 4시(사무실에 접수)  
5. 레지오마리아 성지순례: 11월 8일(사무실에서 티켓을 구하세요)  
6. 미사안내: 금주-인류의 모후, 구세주의 모후  
차주-상아탑, 천상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239,850원 ☐ 교무금: 1,314,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익도

- ※ 경축! 본당의 날(10월 25일)  
주일미사 및 견진성사: 10:30-12:30 나눔의 잔치: 12:30-2:00  
구역대할 및 줄다리기: 2:00-4:00  
※ 우리모두 참여하여 흥겨운 본당의 날을 기립니다.  
1. 모임안내: 반석회,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반기도회 준비모임-23(금) 10시미사 후.  
2. 본당신부님 피정: 19(월)~23(금) 3. 자모, 성모, 성심, 요셉회 단합대회: 26(일) 오전 8시. 장소-숙리산. 4. 미사시간변경: 주일, 월 첫 미사 6시 30분. 신축헌금 봉헌액: 510,000원. 금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송재만 ②김진자. 봉헌·안내-김창선 부부. 김영복 부부. 차주전례: 해설-절이영. 독서-①안남근 ②정영숙. 봉헌·안내-유우정 부부. 강인성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296,850원 ☐ 교무금: 2,341,000원